

역학 II (건강행태/보건지표)				번호: II - 1 - 2	
제 목	국문	대학 신입생의 머리 염색 실태와 관련 증상			
	영문	A Survey on the Symptoms Related to Hair Dye Use among University Freshmen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관,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Kwan Lee, Hyun-Sul L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분 야	역 학 기타	발 표 자	이관	발표형식	구 연
			전 공 의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2002년 12월				
<p>1.연구목적</p> <p>경제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의식과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중 부분 염색을 비롯한 머리 염색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머리 염색을 위하여 표백제, 발색제 등 각종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저자들은 일개 대학 신입생들의 머리 염색 실태와 관련 증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p> <p>2.연구방법</p> <p>2002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중소도시에 소재한 종합대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입생 신체검사 기간 중에 자기 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전체 1,870명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아 분석이 곤란한 자료를 제외하였고,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1,499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는 헤어드라이기 사용 유무, 헤어스타일링제 사용 유무, 염색 유무, 염색 경험 유무 등과 머리 염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10개항의 신체증상 설문을 포함하였다. 자료 입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는 서로 다른 두 명의 연구보조원에 의해 전산 입력되었다. 한글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자료 입력의 일치도를 검정하기 위해 일치율과 kappa(<math>\kappa</math>)를 산출하였고, 헤어드라이기 사용, 헤어스타일링제의 사용 등과 신체증상 발생은 Chi-square 및 Chi-square 경향 분석을 시행하여 유의수준 0.05로 검정하였다. 머리 염색으로 인한 신체증상 발생에 대하여 성별, 헤어드라이기 사용, 헤어스타일링제의 사용, 염색 빈도 및 염색 시간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p> <p>3.연구결과</p> <p>두 사람이 입력한 자료에 대한 입력 일치율은 96.7%에서 100.0%이었고 kappa(<math>\kappa</math>)값은 0.956에서 1.000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89명(52.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18세가 247명(16.5%), 19세 1,014명(67.6%), 20세 171명(11.4%), 21세 67명(4.5%)이었다. 헤어드라이기는 964명(64.3%)이 사용하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링제는 781명(52.1%)이 사용하고 있었다. 머리 염색을 처음 한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중 361명(38.4%), 고등학교 졸업 이후가 345명(36.7%), 중학교 재학 중 206명(21.9%) 등이었다. 조사대상자의 머리 염색 경험률은 62.7%이었으며, 여자(67.0%)가 남자(59.1%)보</p>					

다 경험률이 높았다( $p < 0.05$ ). 조사대상자 1,499명 중 716명이 현재 머리 염색을 하고 있어 머리 염색 유병률은 47.8%이었으며, 여자(54.2%)가 남자(42.7%)보다 높았다( $p < 0.05$ ). 염색을 하는 이유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가 466명(49.6%), '그냥'이 128명(13.6%), '이미지 변신'을 위하여 45명(4.8%), '다른 사람이 하므로'가 41명(4.4%) 등의 순이었다. 염색 후 경험한 신체증상별 분포는 모발증상 709명(75.4%), 피부증상 354명(37.7%), 안구증상 317명(33.7%) 등이었고, 여자와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이 많을수록 모발증상과 안구증상을 많이 호소하였다( $p < 0.05$ ). 머리염색으로 인한 신체증상 발생의 위험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성별에 대한 교차비는 1.84(95 1.25-2.72), 헤어드라이기 1.60(95 1.19-2.281), 염색빈도 1.25(95 1.06-1.47), 염색시간 1.006(95 1.001-1.012) 등이었다.

#### 4. 고찰

본 조사에서 다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머리 염색을 하고 있거나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머리염색과 관련하여 안구증상, 모발증상, 피부증상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였다. 앞으로 머리 염색으로 인한 다양한 건강장애와 발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